

No.20170125-001

제목: 청부살인, 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시모치 아사미

페이지수: 239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1월 12일



<내용소개>

1인당 650만엔이면 청부살인에 나서는 남자, 일상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탐정이 되다?!

누군가를 대신 살해하고 대가를 받는 '청부살인업자'는 범죄 및 미스터리 작품의 단골 패턴이다. 법제 사회에서는 재판을 거쳐 집행되는 사형 외에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인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다. 정확히는, 이 세상에서 아주 완벽히 사라지길 바란다. 은밀한 수요와 공급의 합치점이 바로 청부살인이다. 청부살인과 일상 미스터리.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 키워드가 정통 미스터리 작품을 주로 선보여온 작가 이시모치 아사미의 신작 《청부살인, 하고 있습니다》에서 만났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업으로 청부살인을 하는 남자 '토미사와 쓰루'가 주인공이다. 비용은 1인당 650만엔. 300만엔은 선수금, 나머지 350만엔은 일이 끝난 후의 성공보수다. 연락책을 통해 사건 의뢰를 받으면 3일 동안 말을지 거절할지 고민해 결정하고, 수락한 경우에는 2주 내에 타깃을 처리한다.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지만, 오직 '직업'으로 살인에 임하는 토미사와가 의뢰인 또는 의뢰대상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겪는 에피소드가 7편의 연작으로 펼쳐진다.

<검은 물병의 여자>편에서 타깃이 된 여자는 매일 밤 11~12시에 인적 없는 공원에서 물병에 든 것을 버린다. 대체 무엇이기에 불쾌한 얼굴로 몰래 버리는 것일까? <일회용 기저귀를 사는 남자>편은 의뢰대상인 25세 독신남이 일회용 기저귀를 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유를 궁금해하며 시작된다. 그런가 하면 <동반자>는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자리에 젊은 아들과 동행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 중년 여성은 아들의 전 약혼자이자 결혼사기꾼인 여자를 죽여달라고 의뢰하는데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모든 이야기들에서 윤리보다도 자기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타난다. 임무에 지장은 없지만 그대로 넘기자니 찝찝한 수수께끼에 대해, 토미사와가 추리력을 발휘하며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편 <위협받는 청부살인자>에서는 주인공이 자기자신의 살인의뢰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그는 역으로 의뢰인의 정체와 이유를 조사해나가게 된다.

다소 냉소적이면서도 경쾌한 필체로 묘사한 청부살인의 세계는 물론, 금액이나 의뢰 방식 등이

미묘한 현실감을 형성하며 막힘 없이 읽힌다. 주인공이 밝히는 진상은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 설득력 있는 결론을 안겨주면서도 기발함을 놓치지 않는다. 참신한 설정과 재미, 정교함이 균형을 갖춘 인상적인 작품이다.

<목차소개>

검은 물병의 여자 / 일회용 기저귀를 사는 남자 / 동반자 / 우유부단한 의뢰인 / 흡혈귀가 노리고 있다 / 목표는 어느 쪽? / 위협받는 청부살인소

<저자소개>

이시모치 아사미

1966년 에히메 현에서 태어났으며, 큐슈대학 이학부를 졸업하였다. 2002년 《아일랜드의 장미》로 장편소설 데뷔를 하였다. 2004년 《달의 문》이 제57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후보, 2006년 《문은 아직 닫혀 있는데》가 제6회本格미스터리대상 후보에 올랐다. 《물의 미궁》, 《북 정글》, 《상호확증 파괴》, 《죄인이여 편안히 잠들어라》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70125-002

제목: UNDEAD

저자: 슈키 리츠

페이지수: 38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6월 03일



<내용소개>

돌연 나타난 악마 같은 존재와 감추어져 있던 진실, 생각의 허를 찌르는 미스터리 소설

바이오해저드(biohazard) 즉 '생물재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고가 발생해, 인간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큰 변화와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다수의 영화·소설·만화의 모티브로 쓰였다. 한강에서 정체불명의 괴수가 나타나 인간을 공격하는 영화 《괴물》, 유전자 변형 거미에 물려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되는 《스파이더 맨》 외에 순간의 실수로 좀비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며 인간을 감염시키는 다수의 좀비 스토리들이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트릭을 밝혀내는本格 미스터리 장르의 작가 슈키 리츠가 이번에는 생물재해와 관련된 작품으로 돌아왔다.

어느 산 속에 위치한 대형 제약회사의 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주인공 '이즈미 나츠키'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지 못한다. 기억을 잃은 채로 동료 '쿠로사키 신',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하타 료스케'와 '코무로이 주고', 경비원 '세미츠카 히데하루' 등 몇 명의 생존자를 만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는 이는 없다. 이들은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연구소 부지에서 탈출하려 한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만난 여섯 번째 생존자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알고 보니 그는 무표정하게 사람을 덮치고 잡아먹는 괴물이었다. 이후 주인공 일행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 쫓기게 된다. 그런데 그 무서운 존재들 중에는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있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식인 좀비로 변해버린 것일까?

소설 도입부에는 인육을 먹는 일부 지역의 민족병 '웬디고(wendigo) 증후군'과 실제 벌어진 흉악한 사례를 짧게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본문에 등장하는 식인 괴물에 대한 예고편이자, 독자의 공포를 배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를 말고 있었던 주인공의 기억상실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며, '알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독자의 흥미를 환기시킨다.

이 작품은 좀비의 잔인함보다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끈질긴 의

지에 더 집중하였다. 어둡고 비극적인 소재지만 주요 인물의 짧은 대사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 없이 쉽게 읽히는 작품이다. 나츠키가 과연 언데드를 물리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 끝까지 놀라움을 안겨주는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저자소개>

슈키 리츠

모 국립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13 년《안구당의 살인—The Book》으로 제 47 회 메피스토 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本格 미스터리 계보를 잇는 〈당 시리즈〉최신작 《교회당의 살인-Game Theory》외에 《알다의 방주》, 《재앙》, 《폭주》〈고양이 또는〉시리즈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작품들을 발표했다.

No.20170125-003

제목: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

페이지수: 236

장르: 인문

출간일: 2017년 01월 28일



<내용소개>

어머니를 비롯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와 슬픔을 극복하기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은 부모와 완전한 이별을 경험한다. 생물체로서의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다거나 의도적으로 서로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부모도 있지만 비교적 소수다. 대부분은 노화나 병환 때문에 부모의 죽음을 겪게 된다.

이 책은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자녀와 비교적 더 먼저 깊은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어머니'에 초점을 맞췄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며 생기는 우울함·슬픔 같은 심리적 불안정함 그리고 고뇌는 정서적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던 대상을 잃을 때 수반되는 매우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수개월간 혹은 수년간 지속되며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개인과 사회에 문제가 된다.

저자는 이처럼 어머니의 죽음에 뒤따르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양상을 먼저 소개한다. 후회와 죄책감이 슬픔과 결부되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어, '대상상실반응'과 '비탄반응'을 통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이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를 설명하고 비애와 비탄의 심리적 프로세스 및 그런 감정이 갖는 의의도 설명한다. 어머니와 사이가 가까웠던 자녀, 갈등과 불화를 겪었던 자녀를 대조해 어느 쪽이 모친의 죽음에 더욱 취약한 지 생각해보며 슬픔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발현되는 사례 및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본문의 후반부는 어머니의 죽음을 건강하게 슬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카운슬링의 10가지 원칙,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자신의 서사와 세계를 파탄을 인정하고 재구축에 임하는 마음가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법 등을 제시한다. 언젠가 닥칠 '어머니의 죽음'에 보다 의연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무리한다.

삶의 큰 버팀목인 '부모'의 죽음은 무겁고 커다란 상실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죽음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제각기 달라진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된 증상과 과정을 겪지만, 그 순서나 정도 및 시기는 개인별 차이가 크다. 자기에게 찾아온 심리적 타격을 줄이고 슬픔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어머니와의 사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 제 2장: 소중한 존재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제 3장: <상(喪)>이란 무엇인가
- 제 4장: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제 5장: 슬픔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 제 6장: 어떻게 해야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 제 7장: 고인은 마음 속에 살아 있다
- 제 8장: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극복 기법
- 제 9장: 어머니의 죽음에 매몰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

<저자소개>

에노모토 히로아키

심리학 박사. 1955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도시바 시장 조사과 근무를 거쳐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을 밟은 뒤 가와무라단기대학 강사, 캘리포니아대학 객원 연구원, 오사카대학 대학원 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업연구 및 교육 강연 활동을 펼치며 MP 인간과학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스미마생'의 나라》,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친절함 과잉 사회》, 《기억력을 높이는 과학》 등이 있다.

No.20170125-004

제목: 유능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부하를 움직이는 방법

저자: 타케다 카즈히사

페이지수: 20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27일



<내용소개>

부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팀의 업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리더의 비결

상사는 절대 우위이고 부하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직급과 경력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변화가 정착되기까지는 혼란스럽다. 지금 그 과도기에서 괴로워하는 관리직, 리더들이 상당히 많다. 예전 방식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거나, 친절하게 업무 사항을 묻고 지시하였는데 뜻이 잘못 전달된다. 조금씩 단점이 있는 팀원을 다루는 방법도 고민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마주하는 사이인데 서로 기분 좋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이 책의 저자 역시, 일은 잘했지만 리더로서의 스킬은 부족했다. 그 때문에 시행착오를 몸소 겪고 나서야 적절한 부하 관리 및 매니지먼트 방법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그는 현재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상사와 부하 쌍방을 대상으로 무수한 연수와 강연회를 진행해 왔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장은 상사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는 부하에 대한 내용이다. 업무 시에 주체성을 찾아볼 수 없거나 의도한 바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동료나 후배에게 으스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장에서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하들이 등장한다. 일을 부탁하면 싫은 기색을 숨기질 못하거나 지시한 것만 하면 그뿐이라고 여기는 경우, 몇 번이고 말해도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다. 3장은 납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거나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부하, 불필요한 야근으로 힘을 다 써버리는 등 시간관리를 못하는 부하의 업무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평론가 타입,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타입, 금세 감정적으로 나오는 부하들을 리드하는 비결을 소개하며 5장은 더 발전하고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안을 제안한다. 부하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타입과 상황에 따라 더 효과적인 접근방식과 지시방식을 알려준다.

각 항목의 끝에는 NG토크와 OK토크를 예문으로 게재하였다.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참고자료 삼아 체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부하가 기분 좋게 움직여 일을 할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꼭 읽어보기를 추

천한다.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던 잘못된 의사소통을 발견하고, 리더로서 안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힌트를 던져줄 것이다.

<목차 소개>

- 제 1장: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하에게는?
- 제 2장: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하에게는?
- 제 3장: 시간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하에게는?
- 제 4장: 불평불만이 많은 부하에게는?
- 제 5장: 향상심이 없는 부하에게는?

<저자소개>

타케다 카즈히사

1967 년생. 일반사단법인 리더십 협회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KEYENCE 에 취직하여 2 년 연속 톱 세일즈맨에 선정되었다. 5 명으로 구성된 팀의 리더가 되었지만 부하들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시행 착오 끝에, 부하에게 “~해 볼까”라고 지시할 때 (“행동 레벨로 전달하기” 방법) 오해와 엇갈림이 해소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적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푸르덴셜생명에 스카우트 되어 리더로서 성과를 내다가 퇴직하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였다. 부하 육성 때문에 고민하는 관리직을 직접 지도하며 매니지먼트, 리더십, 동기 부여 등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주제로 한 연수를 10 년 이상 해 왔다. 독자적인 노하우 <행동 레벨로 부하를 움직이는 법>은 즉각적인 효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미루기>가 없어지는 업무 기술》 등이 있다.

No.20170125-005

제목: 마음 안경: '나'는 누구일까?

저자: 가토 후미코

페이지수: 16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8월 28일



<내용소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음안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성공이나 타인의 칭찬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지만, 실패와 비판은 자신감 저하와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 더 쉽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자다. 아직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약한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더욱 민감하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본인의 단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된 태도가 실수로 이어지고, 다시 자책하며 단점에 골몰하게 되는 악순환에 말려들게 된다.

'마음 안경'은 아동 및 성인의 정신건강을 단련시켜주는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해 온 저자가 만든 용어다. 이는 눈 앞에 있는 세계를 전혀 다른 세계로 보이게 해 줄 '사고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후회와 한탄, 결심을 흔드는 약한 의지 같은 마이너스 생각들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담그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 가만히 그 속에 머문다고 해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돼 없어지지도 않는다. 저자는 '마음의 늪'에 빠졌을 때, 마음 안경을 쓰고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본문을 크게 4개 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1장은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자기 성격을 100%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성격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 비관적인 사람은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쉽게 지겨워하는 사람은 인내력만 갖추면 다재 다능한 팔방미인이 될 수도 있다. 소심하다, 화를 잘 낸다, 덤벙댄다, 우유부단하다 등 결점을 강점으로 바꿔줄 비결을 소개한다. 2장은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했다던가 부모님이 장래희망을 반대할 때, 병에 걸려 힘든 상황 등 인생의 어떤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3장은 꿈을 이루고 싶지만 일이 좀처럼 순조롭게 풀리지 않거나 슬럼프로 허우적거리는 시기, 라이벌을 이기지 못해 낙담하게 되는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 4장은 타인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을 화나게 했을 때 해결법과 더불어 행복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음 안경을 쓰는 것은 세상 곳곳에 숨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게임과 같다.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해하고 생산적인 감정으로 바꿔줄 마법의 안경이다. 사춘기를 겪는 10대 중·후반~20대 초반이 주요 타깃이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1. 성격

(네거티브 / 수줍음이 많다 /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등)

2. 사건

(중요한 순간에 실수해버렸다 / 혼나서 찌그러져있다 /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 등)

3. 꿈을 이루고 싶을 때

(잘 될 것처럼 되지 않는다 / 슬럼프 / 중요한 시험에서 졌다 등)

4. 인간관계

(심한 말을 들었다 / 오해를 받았다 /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다 등)

<저자소개>

가토 후미코

아동 멘탈트레이너, TA(교류분석 트레이너), 미국NLP협회인정 NLP트레이너, 행동습관 내비게이터. 마음이 약하고 괴로운 자신을 고치기 위해 세계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전문가로서 멘탈 트레이너가 되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탐구하고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메서드를 개발하였다. 전국 학교와 기업을 돌며 아이, 부모, 선생, 사회인을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하였으며 탁구 세계대회 메달리스트인 히라노 사야카 선수의 멘탈 트레이너를 맡았다. 《스트레스를 깔끔하게 없애는 71가지 기술》, 《멘탈트레이닝으로 부 활동이 바뀐다》, 《멘탈트레이닝으로 수험생활을 극복한다》등의 저서가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koro-genki.net>)

No.20170125-006

제목: 시력을 잃지 않는 삶의 방식

저자: 후카사쿠 히데하루

페이지수: 320

장르: 건강

출간일: 2016년 12월 15일



<내용소개>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당신의 눈에 닥친 위험을 경고한다! 눈 건강을 위해 알아둬야 할 지식

현대인의 생활은 무엇이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데 딱히 안구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시력은 한 번 낮아지면 회복할 수 없다. 안경과 렌즈 또는 수술로 시력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수는 있지만 크고 작은 불편과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40대부터는 노화에 따른 노안이 서서히 찾아오며, 가까운 것이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찾게 된다. 또한 고령자일수록 다수의 안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눈으로 잘 보고 잘 살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이 타이틀에서는 저명한 안과 의사 '후카사쿠 히데하루'가 일본 안과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과 대중에게 퍼져 있는 오류들을 지적하고 수정하며, 눈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을 제공한다. 그는 해외에서 연구 실적을 쌓고 다수의 치료법과 수술법을 개발하며 상을 받기도 수차례, 안과계의 신의 손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프롤로그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아동과 고령자, 운동선수의 사례를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한 다음 전문가로서 파악한 안과 의료 현황을 설명한다. 최신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 무시당하기까지 하며 기존 권위에 기대온 안과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사람들이 안과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비상식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간다. 대형병원·안과·안과 의사, 눈·시력·노안, 안경과 콘택트렌즈,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가령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증,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총 9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에 대해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오해하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 자세히 설명하고 상세한 실제 사례를 곁들여 신뢰도 및 이해도를 높였다. 3부는 죽을 때까지 잘 볼 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일상에서 신경 쓰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한 최첨단 의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지, 능력 있는 안과 의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과에서 당뇨병성망막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내과를 다니면서 상태가 악화된 이유, 20대 남성의 사례, 당질제한으로 혈당치의 변동을 잡는 방법 등을 해설했다.

세계 최첨단 수준의 안과 치료 방법과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을 최대한 쉽게 풀어낸

타이틀이다. 우리의 눈은 언제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다. 근시, 난시, 노안, 망막 질환 등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이 병원으로 뛰어 들어온 몇 가지 사례

제 1부: 내가 봐 온, 일본의 안과의료

제 2부: 틀린 것 투성이인 '안과 고르기' - 〈일본 안과의 큰 착각〉을 도려낸다!

제 3부: 죽는 순간까지 〈잘 보는〉 생활 기술

제 4부: 안과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 당뇨병성 망막증의 치료부터

<저자소개>

후카사쿠 히데하루

안과전문의. 1953 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국립시가의과대학을 졸업고하고 요코하마 시립대학 부속병원, 쇼와대학 후지가오카 병원 등을 거쳐 1988 년 '후카사쿠 안과'를 개원하였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연구 실적을 쌓으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안과의사가 되었다. 백내장과 녹내장의 근대적인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미국 백내장 굴절 교정수술학회(ASCRS)에서 상임이사, 안과 안과전당선고위원, 학술상 심사위원, 학회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ASCRS 최고상을 20 회 받았다. 원장으로 근무 중인 후카사쿠 안과는 일본 최고 수준의 안과로 알려졌으며, 이제까지 15 만건 이상의 수술을 경험했다. 타마미술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화가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하면 안 되는 눈의 치료》, 《눈과 뇌의 예술론》 등이 있다.

No.20170125-007

제목: 생산성

저자: 이가 야스요

페이지수: 248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11월 26일



<내용소개>

근로방식 개혁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묻다

'생산성'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자본, 원재료 등의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였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좋다고 말한다. 작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근로시간은 세계 2위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 하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알 수 없다.

일본 사회에서도 '생산성 향상'은 주요 키워드다. 근로방식을 개혁하여 얻으려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약 17년간 세계 굴지의 컨설팅 펌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컨설턴트 및 인재채용과 육성 직무를 거쳤다. 그는 퍼포먼스의 질 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본기업의 낡은 가치관이 생산성을 경시하는 풍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문에서 저자는 생산성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기가 체험한 맥킨지의 방식을 인용하며 설명해 나간다.

간단히 일본기업과 미국기업으로 양분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들 사이에는 리더십과 생산성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있다. 미국기업은 조직원 전원이 리더의 자질을 익히도록 교육시키지만, 일본기업에서는 조직에 우수한 리더는 한 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기업에서는 상사의 지시와 관행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미국기업에서는 수평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먼저 표명해 쓸모 없는 시간 낭비와 오해를 없앤다. 다수의 유럽·미국계 기업은 "자금과 인재 등 경영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시켜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사고방식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본문 상에 '일본기업'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는 했지만,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부분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개선을 통한 투입자원 삭감/ 혁신을 통한 투입자원 삭감/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라는 4가지 접근법에서 시작하여 오해하기 쉬운 혁신(Innovation)과 생산성의 관계, 개선(Improvement)과 생산성의 관계,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육성 방법

을 논한다. 맥킨지 스타일의 자료작성과 회의진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화이트칼라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릴 힌트가 곳곳에 담겨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나라는 미국기업보다는 일본기업과 더 닮았다. 양에 치중하는 기존의 관습을 아직 버리지 못했으며, 변화가 이뤄지는 혼란스러운 단계에 처해있다. 이 책은 현 상황을 체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흔들릴 때마다 초심을 잡아줄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서 장: 경시되는 〈생산성〉

제 1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4가지 접근법

제 2장: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성 마인드

제 3장: 양에서 질에 대한 평가로

제 4장: 톱 퍼포머의 잠재력을 끌어내다

제 5장: 인재를 포기하지 않는 조직으로

제 6장: 팀의 생산성 향상이 관리직의 사명

제 7장: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연수

제 8장: 맥킨지 스타일 자료 작성 방식

제 9장: 맥킨지 스타일 회의 진행 방식

최종장: 일본경제의 과제인 생산성

<저자소개>

이가 야스요

커리어 형성 컨설턴트. 효고 현 출신이며, 히토츠바시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닛코증권 인수 본부를 거쳐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하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199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맥킨지 앤드 컴퍼니 재팬에서 컨설턴트 및 인재육성과 채용 매니저를 맡았다. 2011년 독립하여 인재육성, 조직운영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채용기준》이 있다.

No.20170125-008

제목: 생명을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저자: 시마조노 스스무

페이지수: 240

장르: 과학

출간일: 2016년 01월 27일



<내용소개>

나날이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민감한 생명윤리문제를 논하다

1996년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가 공개됐다. 성장한 포유동물 복제에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세계로 퍼지며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돌리는 난치병 정복 가능성의 상징이자 윤리의 선을 넘은 존재였다. 비록 6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생쥐, 소, 고양이, 개, 돼지 등 체세포 복제 동물들이 태어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생명과학기술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종교사회학자이자 생명윤리위원회의 일원으로 활약해 온 저자는, 생명과학 중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전 수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연구에 참여해 온 과학자들 이지만 그들은 '생명을 만들어도 되는가'를 판단하지 못한다. 사회가 답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발전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최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의료 활동은 언제나 인류의 행복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인간들의 욕망을 탐욕스럽게 채우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재생의학과 유전자 공학의 발전은 신체의 일부를 교체하고 유전자 단위로 변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치료의 본래 목적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게다가 출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로 자녀의 성별과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생명을 '신이 주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부모가 취향에 따라 아이를 만들어내면서 벌어질 사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만능세포라 불리는 ES세포와 iPS세포의 발견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동물의 세포 조합은 생물 종의 경계를 흔들어놓을 수 있으며, 만능세포로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인공 세포로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저자는 생명의 시작점을 판단하는 기준과 중절,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인한 '뇌사' 선고를 통해 사생관을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21세기의 생명 윤리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근대 서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동양의 특징이었다. <개인으로서의 생명>에 <서로 이어져 있는 생명> 개념을 더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제는 생명과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학자와 사상가, 과학자들도 생명윤리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생명과학의 발전 수준과 허용 범위가 앞으로 인간의 생명 형태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인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가 마주한 생명과학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서 장: 생명과학의 "꿈"과 "한계"

제 1장: 신체를 개조하면 행복해진다? - 치료를 넘어선 Enhancement

제 2장: "이상적인 아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 출산 전 진단과 성별 판정

제 3장: 생명체를 만들고 바꿔도 괜찮을까요? - iPS세포와 재생의료의 꿈

제 4장: <훌륭한 신세계>에는 가고 싶지 않다? - 어떤 미래 예상도

제 5장: <생명은 신이 내려주시는 것>의 의미 - 마이클 샌델이 묻다

제 6장: 작은 목숨을 받아들이는 방식 - <중절>과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

제 7장: 유대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 <뇌사>로 보는 사생관

종 장: 각각의 생명, 연결되는 생명

<저자소개>

시마조노 스스무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문학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인문과학계 연구과 박사과정을 밟았다.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명예교수, 죠치대학 신학부 특임교수 및 그리프케어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근대 일본 종교사, 비교종교운동론, 사생학이다. 폭넓은 주제의 연구에 참여하며 사회문제 대한 의견 표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명의 시작에 대한 생명윤리》, 《일본인의 사생관을 읽다》, 《종교·생명·국가 - 시마조노 스스무 대담집》 등이 있다.

No.20170125-009

제목: '봄'이 뭘까?

저자: 아사노 마스미(글), 아라이 료지(그림)

페이지수: 2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3월 18일



<내용소개>

겨울 가디건에 달려있는 5형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봄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파파, 피피, 푸, 페페, 포포는 귀여운 소녀 에리의 가디건에 가지런히 달려 있는 단추 오형제로, 추운 겨울에 가디건을 입은 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곧 봄이 온다"는 말을 들은 단추 오형제는 <봄은 어떤 것일까?>하며 궁금해 합니다. 날이 풀려 따뜻해질 무렵이면 다음 해 겨울을 기약하며 서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봄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디건처럼 따스하고, 핫케이크처럼 좋은 냄새가 나며, 다리가 달려 다가올 수 있는 것. 여기저기서 들은 말을 조합해 봄이 대체 무엇일지 상상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의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됩니다. 단추 오형제는 그 동안 에리가 출지 않도록 꼭꼭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엄마의 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따스하고 좋은 냄새가 나며 다가오는 것! 이것이 봄일까요? 겪어본 적 없는 미지의 대상을 상상하며 기다리는 단추 형제들의 귀여운 모습이 밝고 개성 있는 그림과 어우러지며 흐뭇한 미소를 선사합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된 봄의 정체를 추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에리를 먼저 생각하는 단추 형제들의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상냥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사노 마스미(글)

1977년 아키타 현에서 태어났다. 2007년 <꼬마 단추 푸치>로 제13회 <해님대상> 동화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성우로서도 활동 중이다. 다수의 출판 작품이 있다.

아라이 료지(그림)

1956년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2005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문학상>을 받았으며 《거짓말쟁이 달》로 쇼가쿠칸 아동출판문화상, 《수수께끼 여행》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특별상, 《숲의 그림책》으로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상, 《아침에 창문을 열면》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No.20170125-010

제목: 오옷!

저자: 더 캐빈 컴퍼니(The Cabin Company)

페이지수: 3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2월 01일



<내용소개>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입니다.

아주 아주 넓고 깊은 바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바다에, 오옷!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대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얼핏 고래의 꼬리 같지만, 책장을 넘기면 의외의 답이 제시됩니다. 한껏 멋을 낸 인어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거대한 장수풍뎅이의 뿔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아주 아주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오옷! 또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길쭉하니 생명체의 목 같고, 한쪽은 둥글고 완만하여 등처럼 보입니다. 책장을 넘기면 또 의외의 답이 나타납니다. 바다 위를 보고 고개를 살짝 내민 코끼리일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맛있는 과일과 크림이 올라간 파르페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갈래갈래 나뉜 구불구불한 모양이 바닷물 속에서 튀어올라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해님의 머리? 아기 쥐의 꼬리?

이 책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실루엣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톡톡 튀는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바다에 그 물건이나 동물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퀴즈를 내듯 생동감 넘치게 읽어주고, 유연한 발상을 맘껏 뽐내도록 장려하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더 캐빈 컴퍼니 The Cabin Company

'아베 켄타로'와 '요시오카 사키'로 구성된 2인조 그림책 작가다. 둘 다 1989년 오이타 현에서 태어났다. 그림책을 비롯해 회화와 입체작품 및 애니메이션 등도 제작하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독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TURNER AWARD2010 미래상, 제7회 일본동화대상 준우수상을 받았다. 그림책 《대왕 오징어, 오징어 씨》(제20회 일본그림책상 독자상 수상), 《아와코의 치약》, 《케첩 열차》, 《밤입니다》, 《먼지학교》 등의 작품이 있다.